소렌하우어의 종교개념에 대한 고찰

이서규 (제주대)

한글 요약

이 논문은 소렌하우어의 종교비판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소렌하우어는 존재 무
신론자로 평가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그가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인식
이 생기게 된다. 소렌하우어는 ‘Parerga und Paralipomena’의 ‘종교에 대하여’에서 데모կ레
레스와 팔라테티스라는 상징적인 인물들의 논쟁을 통해서 종교에서의 수많은 비언
간적인 형식과 독단적인 주장들을 반영하면서 종교의 존재를 비판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대중의 형식적일 뿐이며 하나의 거짓일 뿐이다. 종교가 비록 수많
은 유배들을 통해서 대중들에 전통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패배적이지 않
은 행위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소렌하우어는 종교가 인간과 세계의 현존이에 대한 잠재 주의적 희석을 공유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철학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종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종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잠재주의적 형식에서 출발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잠재주의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절정의 종교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수많은 종교가 인간과 세계에 대
한 이러한 잠재주의적인 해석을 인정한다면 다양한 종교들 사이에는 향연한 연결고리가
존재할 것이며 서로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렌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종
교의 역할은 철학의 역할과 다른 것이 아니다. 소렌하우어는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잠
재주의를 극복하는 종교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의 인식, 즉 인간과 세계존재의
무상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소렌하우어가 종교를 비판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러한 비판에서 종교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에 고
찰하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유죄로서의 종교, 대중의 형식학, 잠재주의, 삶의 의지.
1. 들어가는 말

스캔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불행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행복한 삶에 기대감을, 유혹하는 표상의 세계라는 마야의 나라로 갔어가며 실제로는 모든 존재자를들 페미없이 고통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어가는 광묵적인 삶의 의지와 운명으로 마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는 모든 존재자의 존재근거를 가진다는 원리이지만, 이 의지는 다양한 것이 아니라 광묵적인 삶의 의지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서로 구분하게 하고 가정과 대립의 상태로 이끌어간 것이다. 여기서 세계 속에서 모든 존재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다가올 뿐이다. 이러한 의지가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한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통일 뿐이다. 소련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해방, 즉 광묵적인 삶의 의지의 부정을 시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련하우어의 철학을 ‘구원의 철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구원, 즉 삶의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설계하는 소련하우어의 철학은 이런 이유에서 인간 존재의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와 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종교 또는 종교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의지에 지배받는 인간의 ‘현실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하우어는 전통적인 종교들 속에서 이러한 종교의 근원적인 본질이 형이상학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종교는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을 점점 더 폐쇄적인 상태로 이끌어 갔을 뿐이다. 또한 종교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벗어진 전통종교는 철학과도 매치적인 영역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하우어는 자신의 ‘구원의 철학’을 통해서 종교와 철학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소련하우어는 1822년과 1824년 사이의 유로에서 종교현상에 관한 논의 저서인 『종교자연사』(Natural history of religion)와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를 번역하고 시도했던 사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소련하우어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혼히 우리는 소련하우어를 무신론자로 평가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은 종교에 대한 소련하우어의 비판적인 논의가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종교와 자신의 철학 사이에 놓여 있